

3) 교생과 교육내용

향교의 학생인 교생의 자격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는 17세 이상이었다. 『형국대전』에 “부·대도호부·목의 유생은 각각 90명으로 하고, 16세 이하인 자는 액내에 두지 않는다. 도호부·군·현도 같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6세 이하인 자들은 동몽이라 하여 교생과 구분하였다.

교생의 상한 나이는 40세였다. 군역면제 특전이 주어졌는데 면학에 뜻이 없는 자들이 향교에 머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40세로 제한하였다. 교관이 40세가 되어야 임명될 수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교관과의 연령차이를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0~60세의 교생도 얼마든지 존재하였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에서 연령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교생의 정원은 관부의 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하였다. 1406년에 유수관은 생도 50명, 대도호부·도호부·목은 40명, 지관(군)은 30명, 현은 15명으로 책정하였다. 이 규정은 세종 때에도 변동이 없다가 세조대에 이르러 교생을 늘리자는 주장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1471년에 교생의 수를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된 뒤 대폭 증가하였다. 곧 부·대도호부·목은 각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었다. 이는 조선 말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이 같은 증원은 왕조 초창기를 지나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생의 신분에 대하여 법제적으로 자격이 명시된 바는 없었다. 향교에 입학한 목적이 공부를 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었다면 교생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모두 가능하였으므로 적어도 양인 이상이면 교생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이 함께 교생으로 입학하였더라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향교에서는 같은 교생이라도 신분의 차이에 따라 서로 구별하였다. 이는 향교에 남아 있는 교생안(校生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천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유생안이 적절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순천향교에는 1661년(현종 2)부터 1881년(고종 18)까지 220년에 걸쳐 45건의 유생안과 청금록(靑衿錄)이 남아 있다. 속
중

원안유생안』

이전의 유생안을 보면 교생들을 상액·중액·하액으로 구별하여 이름을 적어놓고 있다. 그리고 상액에 있는 이름들만이 양반유생들의 명단인 청금록, 과거응시자의 명단인 부거안(赴舉案)에서 확인되고 있다. 같은 교생이라도 상액·중액·하액으로 구분한 것은 마치 성균관에서 생원·진사는 상재, 사학에서 입학한 유생은 중재, 일반 한산유학(寒散儒學)은 하재로 구분했던 것과 같다. 곧 교생들의 출신신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른 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라도 담양향교 교생안에는 교생을 상액·중액·하액으로, 또한 액내(額內)와 액외(額外)로 구분해놓았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상액에 들어 있는 이름을 액내에서, 중액과 하액에 들어 있는 이름을 액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향교에 남아 있는 유생안들을 통하여 알아낸 사실은 교생이 출신신분에 따라 상액·중액·하액으로, 또는 액내·액외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상액이 액내, 중액과 하액이 액외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상액·액내만이 청금록·부거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생안과 고을의 문벌양반들만이 등재된 향안과 비교하면 상액에 있는 이름들만이 향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중액·하액 또는 액외에 있는 이름들은 한 명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 상액인 액내교생은 양반, 중액·하액인 액외교생은 양반 신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액내교생이란 정액 내의 교생을 말한다. 고을의 격에 따라 30~90명으로 규정된 교생 정액에 따라 입학시켰다. 그런데 양반은 액내, 비양반은 액외로 구별해놓은 것은 양반들만이 정액규정에 해당할 뿐 비양반들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었다. 각 고을의 향교에서는 양반들을 액내교생으로 받아들이되 양반교생들이 부족하여 정액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양반이 아닌 신분에서 액내를 채우지 않았으며, 비양반들은 따로 액외라 하여 엄격히 구분하였다.

결국 양반과 평민들을 향교에 입학시킨 목적이 각기 달랐다고 하겠다. 양반들은 공부를 시키고 과거를 거쳐 관료로 등용시키겠다는 목적이었음에 비해, 평민들은 교육과 교화를 시켜 체제에 순응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의도에서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왕조 초기부터 이러한 의도는 계속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양반과 평민이 함께 교생으로 입학하였다 하더

라도 신분에 따라 공부하는 장소와 내용, 향교에서의 임무와 역할 등에 차별을 두었다.